

대학 영어 교육 목표 설정을 위한 연구*

양현권
(서울대학교)

Yang, Hyun-Kwon. (2011). A Study on Establishing College English Education Objectives.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4, 136-158.

This paper overviews the college English teaching system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discusses possible changes prerequisite for the betterment of its system. It observes that improvement of college English education is hard to achieve without reestablishing its roles and objectives, paying special attention to its intrinsic relation with English teaching at the pre- and post-higher education levels. The paper suggests that colleges and universities lay more emphasis on quality education, which is best tuned to their students' future needs and wants.

Key words: college English teaching, college education, curriculum development, English education, higher education, objectives and roles of education

1.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어 교육에 대한 요구 및 학습에 대한 수요는 날로 늘어가고 있다. 영어 및 영어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사회 일반의 주요 관심사이며,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영어 교육은 역대 행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이다. 영어 교육 및 학습에 대한 관심과 수요의 정도는 대학에서도 다를 바 없다. 대학생들은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규 강좌뿐만 아니라 학교 내외의 여러 기회를 적극 활용하려 노력한다. 적지 않은 경우 대학생들은 졸업 이후, 그리고 취업 이후에도 영어 학습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바친다.¹⁾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수요와 요구에 대해 대학 당국에서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른바 전통적 의미의 교양영어에 실용적 특징을 부가하려 하는 것이 그 한 가지 예이고,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의

* 이 논문은 2011년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연구소 지원금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¹⁾ 한국영어교육학회와 MBC가 공동으로 마련한 '2006 대한민국 영어보고서'에는 중소도시의 평범한 대학생의 영어학습 경험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이 학생은 공교육을 통해 중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시작한 이래 대학교 졸업 시까지 총 15,548 시간 동안 영어를 공부하였고 영어 학습을 위해 2,148 만원을 지출하였다.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 또한 그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졸업예정자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영어 능력을 졸업 자격으로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영어 교육에 대한 대학 당국의 변화된 자세와 무관하지 않다.

대학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 영어 교육에 대한 사회 전반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최근 수년에 걸쳐 거의 매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대졸 신입 사원의 영어 실력이 낙제점 수준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대학생들 또한 대학에서의 영어 학습 경험에 대해 비판적이다. 이를테면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이 매년 발표하는 ‘대학 생활 의견 조사’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학부 졸업생들 가운데 상당수는 대학에서의 영어 학습 경험이 만족스러운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 영어 교육의 현황을 교육 프로그램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대학 영어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영어 교육의 기본적 틀과 체계를 서울대학교의 경우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는 한편, 대학 영어 교육의 합리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 목표를 국가 차원의 거시적 관점에서 설정하고 정립하는 노력이 필수적임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대학영어 교육 발전 방향 탐색

1. 서울대학교 대학영어 프로그램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영어교육의 목표는 교양의 함양에 있었으며, 이를 위해 독해 능력에 주안점을 두는 강독 위주의 교육, 이른바 ‘교양영어’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 외국어교육에 있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이 중요한 목표로 받아들여지고 교수 방법론에 있어서도 의사소통 접근법(communicative approach)이 지배적인 교육 방식으로 인식되면서, 대학에서의 영어교육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다.

대학 영어 교육의 변화에 대한 바람과 요구는 영어 교육학계 내부에서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줄곧 제기되어 왔다. 다음은 이한빈(1980, p. 2)에서 옮겨 온 것으로,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대학 영어 교육의 전망과 개혁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²⁾

²⁾ 영어교육계 내부에서도 이러한 관점이 줄곧 제기되어 왔는데, 논자에 따라서는 대학 영어 교육의 목표를 “직장생활이나 학문생활을 위한 도구적 목적에 비중을 두며 문화생활을

“이제 외국어는 단순한 교양을 위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써 미래의 한국인에게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생활도구라는 관념을 확고히 세워야 되겠다. 외국어가 단순히 외래문화의 섭취를 위한 막연한 통로로 인식되던 시대는 지나갔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중시하여 영어 교육의 주된 비중을 의사소통 능력 교육에 둔다. 이와 더불어 영어 교육의 범위를 전통적인 영역으로서의 읽기뿐만 아니라 듣기 및 말하기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삼는 경향은 교육의 제공자인 대학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학생들에게서도 관찰된다. 김길중, 신문수, 양현권 및 김진완(1999)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 필요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영어를 학습하는 이유 또는 동기로 제시했으며, 음성 언어—말하기(40.5%)와 듣기(38.8%)—능력 함양에 대해 강한 필요와 욕구를 나타냈다.³⁾

1) 서울대학교 ‘대학영어’ 프로그램 개관

대학 안팎에서의 영어 학습 및 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대학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의미 있는 변화를 촉발하였으며, 서울대학교의 ‘대학 영어 프로그램’의 체제와 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왔다. 현재 서울대학교의 ‘대학 영어’ 교육은 기초교육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기초교육원은 종전의 교양과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대부분 대신하는 기구로 주로 학부 신입생들의 기초 교양 교육에 초점을 둔다.

서울대학교의 ‘대학영어 프로그램’이 근년에 겪은 변화 가운데 특히 주목할 점은 <교양영어>라는 강좌로 운영하여 오던 영어 과목을 1999 학년도부터 의사소통에 초점을 둔 <실용영어>로 개편한 것과, 2000 학년도부터는 이를

즐거게 하는 통합적 목적을 동반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동수 & 김해동, 2001)”고 제안하기도 한다.

³⁾ 조정순 (2002)은 국내 여러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 욕구 등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영어 교육의 초점을 듣기와 말하기와 같은 음성언어에 두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의사소통 능력의 핵심으로 파악하는 한편 이들 능력에 대한 학습 욕구가 매우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완하여 <대학영어>라는 강좌로 운영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⁴⁾

2000 학년도 1 학기부터 운영되어 온 ‘대학영어 프로그램’은 읽기 교육 위주로 진행되던 이전의 <교양영어>와는 달리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능력 모두에 초점을 둔다. 또한 <교양영어> 프로그램에서는 학생의 영어 능력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과정의 강좌를 제공하였던데 비하여, ‘대학영어 프로그램’에서는 학생의 영어 능력에 따라 수강 가능 과목을 달리 하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특징을, <기초영어>와 <대학영어> 강좌에 초점을 두어, 2008 학년도의 교과목 개요에서 간추린 것이다.

(1) 기초영어

<기초영어>는 TEPS 점수 550 이하이거나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이 없는 학생이 수강한다. 1학점 수업으로 합격/불합격으로 평가되며, <기초영어>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학생은 TEPS 점수 없이도 <대학영어> 수강이 가능하다.

(2) 대학영어

<대학영어>는 TEPS 점수 551~750, TOEFL 점수 523~582(CBT 193~236)의 학생이 수강한다. 이 강좌의 목적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의 의사소통 능력은 물론 통합적인 사고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기초영어>와 <대학영어> 이외에, 서울대학교의 ‘대학영어 프로그램’에서는, 영어 능력 수준이 높은 학생들을 위하여, <고급영어>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이 과목은 학생들이 <대학영어>를 통해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익힌 후에 자신들의 흥미와 필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고급 수준의 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하려는 배려에서 개설하였다.

(3) 고급영어

<고급영어>는 TEPS 점수 751 이상, TOEFL 점수 583 이상(CBT 237 이상)의 학생이 수강한다. 개설 강좌로는 <산문>, <학술작문>, <시사토론>, <영상예술>, <연극을 통한 영어연습>, <영어권 문화의 이해> 등이 있다.

정상준, 민은경, 박용예, 송미정 및 신광현(2006)은 서울대학교 대학영어 교육의 개선 방안을 살펴 본 연구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학영어> 강좌와 <고급영어> 강좌 사이에는 수준 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대학영어>를 수강한 학생들이 곧바로 <고급영어>를 수강하기가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다.

⁴⁾ 강지훈 (2001)은 <실용영어> 및 <대학영어>가 도입된 시점에 서울대학교의 학내 구성원들이 이들 변화를 어떠한 관점과 시각에서 인지하고 수용하고 있었는지를 교육 수요자의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영어>를 세분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고급영어>를 보다 세분하거나 확대하는 가능성을 논의하는 등의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 제안 가운데 <대학영어>를 세분하여 제공하는 방안은, 2009학년도 이후에 <대학영어>를 <대학영어 1>과 <대학영어 2>로 나누어 개설하는 방안으로 구체화되었다. 다음은 2011학년도 현재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대학영어 프로그램에 개설된 주요 과목의 개요를 옮겨온 것이다.

(4) 기초영어

<기초영어>강좌는 필수교양과목인 <대학영어1>의 선행과목으로서 <대학영어1> 수강 자격 기준 TEPS 점수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이 <대학영어1>을 성공적으로 수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영어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개설되었다.

(5) 대학영어1

본 강좌의 목적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영역을 모두 다룸으로써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은 물론 통합적인 사고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본 강좌를 통해 학생들은 지적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관련된 글을 읽고, 영어로 그 주제에 관한 토론과 작문을 병행함으로써 21세기의 다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실용적인 영어 의사소통능력뿐만 아니라,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비판적인 사고 능력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6) 대학영어2

① Writing (글쓰기)

이 강좌는 학생들이 자료를 정리하여 논쟁적이며 분석적인 에세이를 쓸 수 있도록 돕는다. 영어로 쓰인 자기 글을 직접 수정하고 흔한 EFL 글쓰기 오류를 피하도록 지도한다. 문단 위주의 글쓰기 연습을 한 후 학기말에는 4-5개 문단 분량의 에세이를 써서 발표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 제출하도록 한다.

② Speaking (말하기)

본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청중 앞에서 효과적으로 영어로 연설이나 발표를 하는데 필요한 언어적, 비언어적인 기술과 여러 주제에 관한 다양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들을 배우게 된다.

2) 서울대학교 ‘대학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근년에 들어 서울대학교 ‘대학영어’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각적인 평가와 심층적인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송미정과 박용예(2004),

Wolfe-Quintero와 Crookes(2005) 및 정상준 외 4인(2006) 등이 그 주된 연구에 해당한다. 송미정과 박용예(2004)는 <대학영어> 강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계량적 관점에서 사례 조사 형식으로 연구한 것으로, 그 초점을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 정도에 두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2003학년도 1학기 동안 <대학영어>를 수강한 결과, 읽기 능력을 제외한 영역에서 영어 능력이 향상되었다. 더불어 강좌에 대한 만족도 또한 담당 교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서도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이 연구에 제시된 설문 조사 결과를 ‘강의 전반에 대한 만족도’ 및 ‘수업의 효과’에 초점을 두어 정리한 것이다.

표 1

강의 전반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합계
	①	②	③	④	⑤	
응답자 수 (명)	0	3	25	65	39	132
비율 (%)	0%	2.4%	18.9%	49.2%	29.5%	100%

표 2

수업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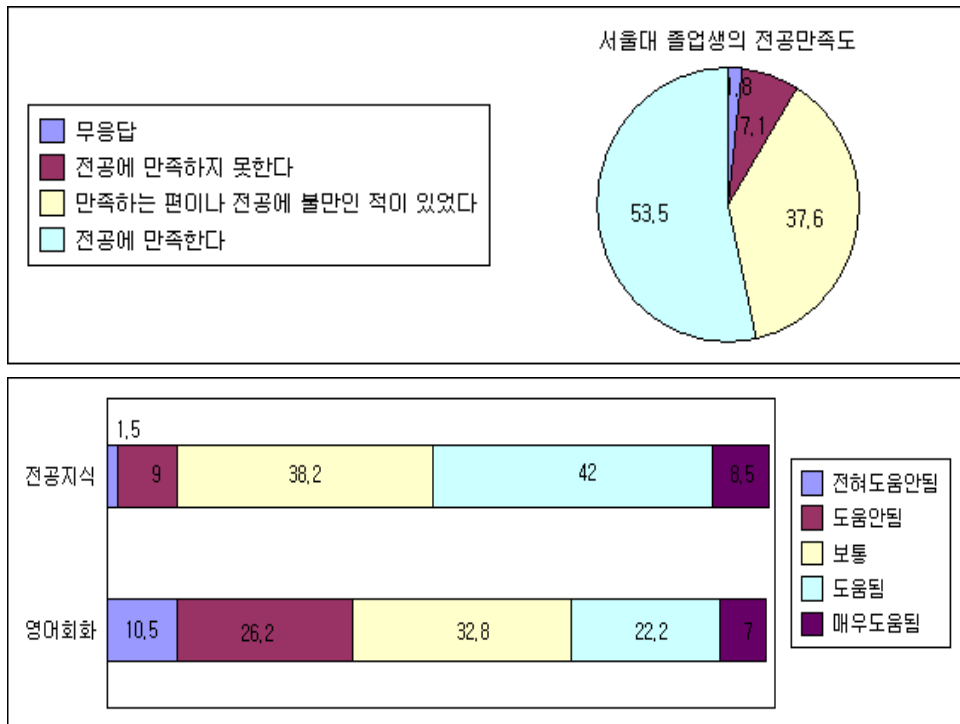
수업 효과	도움이 되지 않았다 ←	보통이다	→ 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	합계
	①	②	③	④	
응답자 수 (명)	10	39	67	16	132
비율 (%)	7.6%	29.5%	50.8%	12.1%	100%

그런데 위 연구 결과는, 서울대학교에서의 영어 학습 경험에 관한 대부분의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는 사뭇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에서 2007년에 발표한 ‘대학생활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8월 및 2006년 2월에 졸업한 학부생의 88.9%가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한 것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들 졸업생은 자신의 지적 수준을 묻는 질문-창의력 및 문제 해결력, 미래에 대한 비전, 논리적 사고력에 관한 학습 성과-에 85% 이상이 보통 이상의 수준을 갖추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영어 능력과 관련된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영어 글쓰기와 영어 회화 능력이 보통 수준에

미달한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33%와 29.3%이었으며, 대학 영어 교육이 영어 글쓰기와 영어 회화 능력 함양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38.6% 및 36.7%에 달했다.

도표 1
대학교육의 능력 개발 기여도 및 전공 만족도 (%)



대학 졸업 당시의 영어능력 수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2011년도에 발표된 ‘대학생활 의견조사 보고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 보고서의 조사 대상은 2010년 8월 및 2011년 2월의 서울대학교 졸업예정자들이었으며, 아래는 그 조사 결과의 일부를 옮겨온 것이다.

아래의 보고에 따르면, 졸업예정자들은 대학에서 얻어온 결과로서의 여러 능력 가운데 ‘영어 회화 능력’과 ‘영어 글쓰기 능력’ 수준을 다른 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게 평가하였다.

표 3
대학교육 요구: 교육 강화 필요성

		현재 수준
전문능력	1. 전공관련 지식·기능·안목	3.42
	2. 희망하는 직업관련 전문의식	3.41
영어능력	6. 영어 독해 능력	3.34
	7. 영어 회화 능력	3.03
	8. 영어 글쓰기 능력	2.92
사회성	13. 팀협동 과제수행 능력	3.60
	14. 선후배 및 동료와의 인간관계	3.65
	15. 리더십	3.40
기본소양	3. 글쓰기 능력	3.27
	4. 구두발표 및 토론 능력	3.36
	5. 비판적 독서 능력	3.34
	9. 컴퓨터 활용 및 정보화 능력	3.49
	10. 논리적·과학적 사고력	3.58
	11. 창의력 및 문제해결력	3.47
	12. 예술적 소양 및 안목	3.28

서울대학교에서의 영어 학습 경험이 학습 수요자들의 요구 및 기대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비단 학생들 또는 졸업생들에게만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Wolfe-Quintero와 Crookes(2005)는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의 요청에 의해 ‘대학영어 프로그램’을 진단한 외부 연구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대학영어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가 지향하고 목표로 하는 바와는 달리, 국내 최상의 대학영어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와 한계가 있다. 또한 이들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장래의 개인적, 학문적 그리고 실용적 목적을 위해 영어로 의사소통 하는 능력을 함양하기를 원하지만, ‘대학영어 프로그램’은 교육 수요자의 이러한 교육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

정리하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송미정과 박용예(2004)에 논의된 것과 같이, <대학영어> 강좌를 통한 영어 학습 경험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영어 학습 경험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의 경향이 짙다. 달리 말하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대학영어> 학과목을 통한 학습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대학 영어 교육 전반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자가 원하는 수준의 영어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⁵⁾

3) 서울대학교 재학생의 영어 학습 욕구와 기대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에서는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특성 조사 연구를 수행한다. 이 조사 항목에는 신입생들의 교육 욕구에 관한 설문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영어 독해 능력, 영어 회화 능력 및 영어 작문 능력에 대한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2005년도에 조사된 내용의 일부를 옮겨온 것이다.

표 4
현재 수준

현수준	평균 (순위)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응답자 (명)
영어 독해 능력	3.16⑥	2.2	15.7	50.6	27.1	4.4	2402
영어 회화 능력	2.44⑮	14.7	41.3	31.9	9.0	3.0	2401
영어 글쓰기 능력	2.27⑯	21.6	40.9	28.7	6.9	2.0	2402

* 평균치 산출 방법: 매우 낮음=1, 낮음=2, 보통=3, 높음=4, 매우 높음=5

이 표에 정리된 바에 따르면, 학생들은 영어 기능의 여러 영역 가운데 특히 영어 회화 및 영어 작문에 관심과 학습 필요성을 느끼며, 이들 영역에 대한 능력이 자신의 진로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긴다. 이는, 언론 매체 등에 흔히 보도되는 바, 대학생들이 영어 교육, 특히 의사소통능력의 함양에 대해 강한 학습 욕구를 지닌다는 통상적 차원의 인식과 다르지 않다.

영어 회화 및 영어 작문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대학 신입생에게서만 아니라, 대학 졸업예정자들에게서도 관찰된다. 2011년도에 발표된 ‘대학생활 의견조사 보고서’(최진영, 김혜란, 김창대, 고상근, 2011)에 따르면, 2010년 8월 및 2011년 2월의 서울대학교 졸업예정자들은 대학에서 제공되는 여러 부분에 대한 교육 가운데 특히 영어 회화와 영어 글쓰기에 있어서 보다

⁵⁾ 서울대학교 대학 영어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계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대학 영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영어 교육만으로는 각자가 원하는 수준의 영어 능력을 연마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김명환, 2007).

강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표 5
대학교육 요구: 교육 강화 필요성

		현재 수준 ①	중요도 ②	교육 강화 필요성 (5-①) x ②
전문능력	1. 전공관련 지식·기능·안목	3.42	4.11	6.36
	2. 희망하는 직업관련 전문의식	3.41	3.89	6.03
영어능력	6. 영어 독해 능력	3.34	3.67	5.96
	7. 영어 회화 능력	3.03	3.60	6.91
	8. 영어 글쓰기 능력	2.92	3.57	7.22
사회성	13. 팀협동 과제수행 능력	3.60	4.02	5.39
	14. 선후배 및 동료와의 인간관계	3.65	3.98	5.13
	15. 리더십	3.40	3.81	5.80
기본소양	3. 글쓰기 능력	3.27	3.93	6.67
	4. 구두발표 및 토론 능력	3.36	4.06	6.51
	5. 비판적 독서 능력	3.34	3.86	6.20
	9. 컴퓨터 활용 및 정보화 능력	3.49	3.51	5.11
	10. 논리적·과학적 사고력	3.58	3.98	5.46
	11. 창의력 및 문제해결력	3.47	3.99	5.97
	12. 예술적 소양 및 안목	3.28	3.45	5.58

영어 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욕구는 자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대학 졸업생에 대한 사회에서의 기대 및 요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6 대한민국 영어보고서’(한국영어교육학회, 2006)에 따르면, 설문 대상으로 삼은 72개 회사의 인사담당자 가운데 70.2%가 영어가 승진과 연봉 책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에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또한 온라인 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잡코리아의 조사 결과를 2008년 1월 8일 연합뉴스에 보도된 바에 따라 옮기면, 최근 기업의 신입 사원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다 강화된 영어면접이다. 또한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채용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영어 구사 능력을 우대조건으로 내세우는 기업의 비율 또한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대학생들은 졸업 후 다양한 전문 분야로 진출한다. 국제화된 사회에서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야에 따라 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일정한 수준의 영어 능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학생들로서는 이러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둔감할 수 없다. 이러한 관계로, 대학생들은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 영어에 대한 강한 학습 욕구를 느끼며, 영어 학습을 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

물론 대학에서도 영어 교육에 대한 대학생 및 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대해 무관심하지는 않다. <부록>에 정리된 것과 같이, 서울대학교의 경우 언어교육원에서 유학 및 취업 등의 다양한 유형의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영어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려 노력한다. 또한 교수학습센터에서는 특히 학생들의 학문적 목적의 영어 능력에 대한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영어논문 작성법 워크샵 및 영어 발표 워크샵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력개발 센터에서는 취업준비를 위한 공개 강좌로서 영문 서류 작성법 강의, 영어면접 대비 특강, 영어면접 대비 실습, 영어 집단 토론 실습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기관에서 제공하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은, 기초교육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는 달리 비정규 강좌일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대학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까닭에 학생들은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그리고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영어 능력을 효율적으로 계발하기 어렵고,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도 의도하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2. 대학 영어 '교육' 개선을 위한 제언

1) 실용적 기대와 기능적 요구에 대한 이해

다음은 정상준 외 4인(2006)에서 인용한 것으로, 서울대학교의 '대학영어 프로그램'의 지향점이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의 영어 교육은 영어권 지역의 사회와 문화를 내용으로 영어를 매체로 영어 구사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영어 교육이 기술적 언어 훈련을 넘어서 인문 교육과 교양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요컨대 언어 훈련과 더불어 영어권 지역에 대한 학제적 교육을 구현할 때 지구화 시대에 비판적,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길러줄 수 있을 것이다.”

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대학영어' 교육은, 한편으로는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문화적 역량을 길러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을 함양토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그런데, 위 인용에 제시된 관점은 의사소통능력으로서의 영어 능력에 일정한 관심을 두지만,

언어 능력 자체보다는 교양으로서의 자질을 보다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사회에서 대학 졸업생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영어 능력은 교양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영어의 사용과 실용적 활용에 실제적 초점을 둔다. 또한 사회의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는 이들 영역에 진출하는 대학 졸업생들에게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능적 자질로서의 영어 능력을 요구한다. 이런 까닭에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졸업 후 현실 맥락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을 연마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대부분의 경우 ‘교양과 더불어’ 또는 ‘교양을 통해’ 함양된다기보다는 도구적 능력으로서 개발되어야 하는 특징을 지닌다.

다음은 Wolfe-Quintero와 Crookes (2005, p. 32)에서 인용한 것이다.

“Undergraduate students want to continue their studies abroad in English-speaking universities, or want to get a job with an international company that may require role-playing in English as part of the job interview. The CEP must prepare students for all of these goals and needs, because this is what *College English* means in Korea.”⁶⁾

이 연구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졸업 후의 전망에 기초하여 각자에게 필요한 영어 능력을 연마하기를 원하며, ‘대학 영어 프로그램 (College English Program)’은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대학 영어 교육에서 영어의 실용적인 측면에 보다 적극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학생들에게서만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대학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 특히 영어 교육과 관련된 전공 영역에서 전문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대학영어’ 프로그램이 ‘교양’보다는 ‘언어’ 측면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⁷⁾ 특히 실용적 능력으로서의 영어 기능 교육에 초점이 주어지기를 기대한다.⁸⁾

⁶⁾ Wolfe-Quintero 와 Crookes (2005, p. 13)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장래 학업 및 취직을 위해 필요한 영어 기능 능력을 연마하기를 원하지만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 이러한 기회를 만족할 만한 정도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⁷⁾ Wolfe-Quintero 와 Crookes (2005, p. 12).

⁸⁾ Wolfe-Quintero 와 Crookes (2005, p. 28)에 인용된 Ruffell (2005)의 조사에서도,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영어의 여러 기능 가운데 특히 말하기와 듣기 기능을 중요시 한다는 점이 보고되어 있다.

2) 사회 유기체적 관점에서의 이해

대학은 고등교육을 주관하여 관장한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대학의 역할과 사명은 고등교육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 및 초·중등교육과 밀접히 관련된다. 사회 전반과의 연관성은 대학이 국가 사회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관계에서 주로 찾을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과의 연관성은 초·중등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다는 관계에서 비롯된다.

대학의 이러한 위상에 비추어 볼 때, 대학이 사회의 건전한 단위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사명을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인식해야 한다. 특히 탈경계화로 특징지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대학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과 학문 연구의 주체라는 관점에 더하여 사회 유기체의 일원이라는 차원에서 자체의 체제를 성찰해야 한다.⁹⁾

이를 영어 교육과 연관하여 기술하면, 대학은 우선 대학에서의 영어 교육에 대한 수요와 요구를 현실 중심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졸업예정자의 영어 능력에 대한 사회의 수요와 요구를 파악함과 아울러 재학생의 영어 학습 필요 및 욕구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첫 단계의 과업을 통해 대학은 대학 영어 교육의 지향점을 보다 현실적인 지평에서 확인하게 된다.

이들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대학은 영어 교육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목표 설정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학은 필수적으로 영어 교육 수요자로서의 신입생의 출발점 수준을 인식하고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통해 공교육 체계로서의 초·중등학교 영어 교육과 긴밀하게 연계된다. 이 연계 체제에서의 대학의 능동적 역할은, 뒤에서 논의하는 것과 같이, 국가 차원의 영어 교육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바탕이 된다.

위에서 살펴 본 두 단계-대학 영어 교육에 대한 필요 및 욕구 조사 및 교육 목표의 설정-은 대학 영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마련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이다. 그런데, Wolfe-Qunitero와 Crookes(2005)에 따르면, 서울대학교에서는 그 동안 이러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이를테면, 첫 번째 단계의 과업, 즉 대학 영어 교육에 대한 필요 및 욕구 조사를 대학 전체의 차원에서 시행한 적이 없다. 물론, 특정 단과대학 중심으로 단편적인 수요조사가 실시되기도 하고, 대학생활문화원 중심으로 학생들의 학습 수요 조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이는 대학 영어(교육)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학

⁹⁾ 이는 대학 영어 교육이 교양으로서의 영어 또는 인문 교육으로서의 영어 교육을 훼손하거나 경시하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교양으로서의 영어 지식과 더불어 기능으로서의 영어 능력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차원에서 대학 영어 교육의 지향점이 논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전체의 영어 교육 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바탕으로 삼기에는 지극히 부분적이고 단층적이다. 두 번째 단계, 즉 교육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서도, 서울대학교의 ‘대학영어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교육 목표가 불분명하여, <대학영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조차 ‘대학영어 프로그램’이 어떠한 목적으로 수행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한다.¹⁰⁾

대학영어 프로그램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프로그램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까닭은 교육의 실질을 이루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만 합리적으로 구안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 목표의 설정과 교육 과정의 수립은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추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며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기도 하다.

대학 영어 프로그램 체제가 이러한 형편에 놓이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동안 대학이 영어 교육의 목표를 ‘대학 내부자 시각’에서 선언적으로 설정하는 한편,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교양 교과 위주’의 전통적 관점에서 가능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제 대학은 그 자체만의 다소 미시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 통합적인 거시적 관점에서 대학 영어 교육 프로그램 체제를 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뒤에서 살펴보듯이, 대학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영어 교육을 포함한다면 전체의 영어 교육의 내실화 및 건전화를 위해서도 긴요하고도 필수적이다.

3) 대학 영어 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제언

앞에서 논의한 새로운 체제를 구체화하여 정립하는 경우, 이 체제를 우리나라 모든 대학에서 일거에 시도하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노력은 효율성 및 실천 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먼저 대학 영어 프로그램의 개선에 분명한 의지와 실천적 여지가 있는 몇몇 대학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에 기초하여,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들 대학의 이러한 노력은 추후 새로운 체제의 정립에 동참하게 될 여러 대학에 확대 적용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단위의 외국어 정책-연구 기관’, 이를테면 ‘국립 외국어원(가칭)’에서 이들 노력에 체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실시를 전제로 하여 개별 대학 차원에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교육과정의 설계이다. 현재 영어 교육과 관련하여 흔히 활용되는 교육과정 모형으로는

¹⁰⁾ Wolfe-Quintero 와 Crookes (2005).

순환 모형이 있다. 이 모형에서는 교육과정을 <욕구조사-목표 설정-교육방법 개발-교육과정 운영-평가 및 개선>이라는 단계적 절차에 따라 구안한다.¹¹⁾

순환모형의 첫 단계, 즉 필요 욕구 조사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육 수요자로서의 학생들의 필요와 욕구에 초점을 둔다. 이와 더불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 졸업생의 영어 능력에 대한 요구 및 기대를 국가와 사회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한다.¹²⁾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서울대학교에서는 ‘대학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 욕구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한 적이 없다. 논자에 따라서는, 필요 욕구 조사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학에서의 영어 교육이 실용 또는 언어 기술에 초점을 두는 것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며, 영어 교육을 ‘교양’ 및 ‘인문’에 초점을 두어 파악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경향이 보다 짙다.¹³⁾

대학영어 교육에 대한 필요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심층적으로 탐색해 보지 않은 현재로서는 어떤 입장이 보다 합리적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체계적인 필요 욕구 조사를 시행한 다음, 그 결과를 두고 대학 영어 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 욕구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기 는 하지만, 실용적 측면의 영어 교육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게 될 수도 있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일은 대학생들에게 영어 학습과 관련하여 어떠한 필요와 요구가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일이다.

필요 및 욕구 조사를 실행한 다음 단계에서는, 교육 목표 설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유념해야 할 사항 이외에,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첫째, 교육 목표 설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대학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여야 하지만, 대학 영어 교육에 대한 사회 전반과 교육 수요자의 기대와 요구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초·중·고등학교의 영어 교육의 목표와의 관계를 체계적이고도 실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학은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 체계적 연계를 구축하게 되는 한편, 국가 단위의 거시적 교육 체제 발전을 위한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대학 입시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대학 입시 요강에서 영어와 관련된 전형 요소에 변화가 감지되면 그 변화가 아무리 미세한 것이라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및 학부모는 예외 없이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는 흔히 국가 전체의 사회 문제로 비화되곤

¹¹⁾ Brown (1995).

¹²⁾ Long (2005).

¹³⁾ 엄용희 (2002)에서는 대학 영어교육을 교양과 실용의 두 관점에서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음.

한다. 그런데, 대학은 스스로의 영어 교육 체계를 합리화함으로써 공교육으로서의 영어 교육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신입생에게 기대하는 영어 능력을 되도록 최저 수준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대학이 스스로의 교육력을 극대화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대학은 필요 이상의 영어 능력을 신입생들에게 요구할 이유도 없고 그러할 필요도 없다.

대부분의 대학생은, 초·중·고등학생에 비하여, 장래에 필요한 영어 능력이 구체화되고 상세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에게 '필요하고도 충분한' 영어 교육을 합리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제공하게 되면,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영어 교육은 기본 소양 및 기초 의사소통 능력에 집중할 수 있다.¹⁴⁾ 이러한 노력은 사회 전체의 영어 교육에 대한 비정상적인 수요와 욕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적 관심사로서의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는 값진 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학은 우수 인재 선발이라는 소비적 경쟁을 떠나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생산적 혁신을 추구하게 되며, 이를 통해 건강한 평생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III. 마무리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영어 교육은 대학 교양 과정의 학과목의 관점에서만 논의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어 교육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이고 중요한 국가 정책 과제이기 때문이다. 영어 교육을 이처럼 국가 사회의 중요 과제로 인식하게 되면, 대학에서의 영어 교육은 대학의 사회적 사명 및 역할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고도로 산업화된 무한 경쟁의 국제사회에서 대학은 사회의 변화를 읽어내고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이에 바탕을 두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영어 교육과 연관하여 구체화하면, 대학은 졸업생들에 대한 사회의 수요와 요구를 영어를 중심으로 읽어내고 이에 근거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 물론, 이는 실용영어로의 집중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교양'으로서의 영어 능력과 더불어 사회적 필요와 요구에 근거한 영어 능력의 함양을 의미한다.

아주공과대학의 학장이었던 이한빈은 1980년 『영어교육』에 발표한 글 '未來가 요구하는 英語教育'에서 향후의 사회를 국제화라는 관점에서 통찰하면서 '외국어에 관한 시대는 바야흐로 '섭취'의 시대로부터 '활용'의 시대로 바뀌었다'고 피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또한 "대학생들이 그들의

¹⁴⁾ 이른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국민공통교육과정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기초 소양과 능력을 함양하게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30대 초에 도달할 90년대를 향하여 우리나라 대학에 있어서의 영어 교육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는 “표현능력 중심의 영어교육, 전방위 영어 학습, 실질 과목 기반의 영어 교육, 대학 영어 교육의 개혁”이 포함되어 있다 (pp. 2-3). 이한빈(1980)의 글이 발표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대학 영어 교육은 사회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변화에 귀를 기울여 왔는가? 그리고 현재 대학 재학생들은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영어 능력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대학에서 찾을 수 있는가?

국가간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어 가는 변혁의 시대에 대학도 변해야 한다. 그것은 대학의 자발적 변모와 능동적 변혁이 사회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자 촉매제이기 때문이다. 대학이 무한 경쟁의 국제화 시대에 학문적 지평과 전통을 굳건히 유지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사회 친화적 체제로 거듭나야 한다. 이 새로운 체제에서 대학은 대중과 사회에 다가가고자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사회 발전의 흐름을 유도하고 창출하는 동인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학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서울대학교의 ‘대학영어’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대학이 국가 사회 유기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영어 교육을 중심으로 짚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그 구체적 방안으로, 초·중등학교와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영어 교육 체제를 제안하였다. 이 새로운 체제에서 대학은 건전한 국가 교육 공동체의 핵심적 주체로 기능하게 된다. 더불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소모적 경쟁에 집중하기보다는 국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생산적 노력에 매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은 스스로에게 지워진 고등 교육의 수행이라는 사명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행함과 아울러, 공교육 및 사회 전체의 영어 교육 기반을 건전화하고 체계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게 된다.

참고문헌

- 강지훈. (2001). 대학영어가 도대체 뭘데?, *서울대 저널* 49.
- 권석만, 정지현. (2007). *2007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서*,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 권오량. (1995). 한국의 영어교수 방법과 교수방법론 연구의 변천. *영어교육*, 5(2), 107-131.
- 권오량. (2002). *국제 인력 양성을 위한 영어교육-대학의 영어교육과 기업 국제화 교육의 연계성*. 국제교류진흥회 심포지움 발표논문.
- 김규현, 서경희, 차경애, Slacova, J. (1998). 대학영어를 위한 실용영어 교수법 연구. *외국어 교육*, 4(2), 71-96.

- 김길중, 신문수, 양현권, 김진완. (1999). 한국인 대학생 영어 학습자의 필요 욕구분석: 사례 연구. *외국어교육연구*, 2, 1-28.
- 김도연, 김태유, 이병기, 이장무. (1997).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교육혁신-21세기 산업과 사회의 지도자 육성*.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 김동욱, 정대수, 장순열, 엄철주. (1999). 산업대학에서의 바람직한 영어교육과정 모형개발. *영어교육*, 54(1), 253-296.
- 김명환. (2007). 대학 영어 강의에 대한 짧은 생각. *열린 지성*, 10, 12-15.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 김순복. (1997). *원어민의 3단계 High Tech & High Touch 교육안*. 제 3회 국제학술심포지움. 세종대학교 어학연구소.
- 김창호. (1995). 지방대생 영어학습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영어교육*, 50, 65-92.
- 김현진. (2005). 지방대학 교양영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영어교육 전문가 설문 연구: 델파이 설문을 중심으로.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2(4), 317-341.
- 박상옥. (1988).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안. *영어교육*, 35, 83-105.
- 박준언. (1997). 원어민 교수에 의한 대학생 의사소통 영어교육의 운영결과분석. *영어교육*, 52(1), 161-187.
- 박준언. (2000). 외국어 학습의 최근의 흐름과 우리나라 외국어교육에의 시사점. *Foreign Languages Education*, 7(1), 1-23.
- 박준언. (2003). 내용중심 대학교양영어교재 사용결과분석. *영어학*, 3(2), 233-254.
- 박준언. (2004). 한국 대학영어교육의 과제와 해결 노력. *영어학*, 4(4), 593-613.
- 방영주. (2004). 영어 능력 인증제, 능력별. 교과과정, 그리고 대학 교양영어교육: 학생과 교사의 인식에 대한 고찰. *영어어문교육*, 9(2), 193-211.
- 배두분. (1995). 한국의 영어 교육학의 발달. *영어교육*, 50(2), 7-45.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2008). *교양교육 60년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위원회 (2007).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 2007~2005*. 서울대학교.
- 서경희, 배문숙, 류재근, 박정숙. (1999). 산업대학에서의 효율적인 영어교육 방법개발. *영어교육*, 54(1), 297-325.
- 서초순. (1990). 대학 영어교육을 위한 ESP 교과설계. *응용언어학*, 3, 85-108
- 송미정, 박용예. (2004). 대학 교양영어 교육의 통합적 접근: 서울대학교 대학영어 프로그램의 사례연구. *영어교육*, 59(2), 179-211.
- 양현권, 정영국. (2008). *교육영문법의 이해*. 한국문화사.

- 엄용희. (2002). 대학 영어교육의 방향: 교양영어나 실용영어냐. *영미문학연구*, 12, 33-48.
- 이병민. (2003). 우리나라 및 비영어권 대학 영어 관련학과 학부 교과과정 비교연구. *영어교육*, 58(1), 89-118.
- 이한빈. (1980). 미래가 요구하는 영어교육. *영어교육*, 19, 1-4.
- 이효용. (1996). 교양영어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영어교육연구*, 5, 105-129.
- 이희숙. (1985). 교양영어 교과과정 구성에 관한 연구: 교육대학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영어교육*, 29, 229-250.
- 임희정. (2005). 멀티미디어 활용 교양 영어 교과목 개발연구: 학습자 요구도를 중심으로. *영어교육연구*, 17(3), 235-257.
- 전효찬, 최호상. (2006). *영어의 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 정규태, 장경숙. (2006). 웹기반 대학 교양영어 교과과정 설계에 대한 연구. *외국어교육*, 13(2), 1-23.
- 정동수, 김해동. (2001). 대학 교양영어 과목개선을 위한 연구. *영어교육*, 56(4), 265-292.
- 정상준, 박용예, 황윤희, 이혜원, Ryan, P., Sarjeant, N., Ruffell, L., 이시연, 도식. (2005). *대학영어 강의교재 개발*. 서울대학교.
- 정상준, Robert, P., 황윤희, 문도식. (2005). *영작문 프로그램 개선 방안 및 강좌 개발*. 서울대학교.
- 정상준, Wolfe-Quintero, K., Crookes, G. (2005). *대학영어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 서울대학교.
- 정상준, 민은경, 박용예, 송미정, 신광현. (2006). *서울대학교 영어교육 개선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 정상준, 문도식. (2006). *멀티미디어영어학습실 활용방안*. 서울대학교.
- 정영숙, 최영승. (2002).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방안. *영어교육연구* 14(2), 253-275.
- 조동완. (2006). 쓰기 중심의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성과에 관한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3(2), 69-91.
- 조세경, 문승철, 이강혁. (1997). 대학 영어의 교육환경과 제도의 개선 방향. *영어교육*, 52(4), 303-330.
- 조정순. (2002). 대학 교양 영어교육의 현황과 탐구. *영어교육*, 59(2), 365-394.
- 최진영, 김혜란, 김창대, 고상근. (2011). *효과적인 대학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대학생생활 의견조사 보고서*. 서울대학교 대학생생활문화원.
- 한국영어교육학회, 문화방송. (2006). *대한민국영어보고서*, 한국영어교육학회.
- Brinton, D. M, Snow, M. A., & Wesche, M. B. (1993). Content-based second language instruction. In J. W. Oller, Jr. (Ed.), *Methods that work* (pp.

- 136-142). Boston, MA: Heinle & Heinle.
- Brown, J. D. (1995). *The elements of language curriculum: A systematic approach to program development*. MA: Heinle.
- Kim, K., & Yang, H. (2011). *Who needs English skills to what level of proficienc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Hawaii, Manoa.,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 Kong, N. (1996). The communicative approach to Korean college English. *English Teaching, 51*(1), 97-118.
- Lee, H. (2000). Formative evaluation of college general English program. *English Teaching, 51*(1), 97-118.
- Long, M. (2005). Overview: A rationale for needs analysis and needs analysis research. In M. Long (Ed.), *Second Language Needs Analysis* (pp.1-1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ller, L. S. (2001). Needs analysis in a university English conversation program. *English Teaching, 56*(4), 113-139.
- Norris, J. (2008). *Validity evaluation in language assessment*. NY: Peter Lang.
- Park, N. (1994). Issues and trends in Korea's college-level English language teaching. *Language Research, 30*, 297-321.
- Snow, A. S. (1998). Trends and issues in content-based instruction.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8*, 243-26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ddowson, H. G. (1983). *Learning purpose and language us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olfe-Quintero, K., & Crookes, G. (2005). *Evaluation Report: College English Program*. Seoul National University.

부록

서울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현황 (기초교육원 대학영어 프로그램 제외)

1. 언어교육원의 영어교육 프로그램

1) 유학대비 영어프로그램

- (1) 유학 관련강좌: 10월 30일(월) 또는 11월 6일(월) 개강

Academic Writing for Graduate Students Content-based Seminar

Academic Writing in Engineering and Science
 Academic Presentation Skills
 Debating & Public Speaking
 English Pronunciation Clinic
 TOEFL iBT Listening/Reading
 TOEFL iBT Speaking/Writing
 GRE Writing 유학준비영어

(2) SOP(Statement of Purpose) 작성을 위한 워크샵: 수요일 2-5시

SOP Writing (Humanities & Social Science) I
 SOP Writing (Engineering & Natural Science) I
 SOP Writing (Humanities & Social Science) II
 SOP Writing (Engineering & Natural Science) II

(3) 맞춤형교육 (Custom-tailored Language Studies)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편성되는 수업으로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각자 유학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개인 및 소그룹 대상으로 Academic Writing, Academic Presentation, Speaking Test Preparation for TA/GSI Position, Article Reading, Data Commentary 등이 실시되고 있다.

(4) 유학대비 개인 상담 (Consultation)

원어민 강사와 함께 개인적으로 1시간 동안 영어연습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1시간 단위로 진행되며 실연, 비디오녹화, 분석과 교정, 재연습 등으로 이루어진다. 유학서류 개인상담, 전화인터뷰 연습 등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5) 교정 서비스

언어교육원 교정/번역 프로그램에서 SOP 교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SOP 교정 서비스에서는 SOP 한영 번역이 아닌 영문 원고에 대한 교정만을 제공하고 있다.

2) 취업대비 영어프로그램

(1) 취업대비 관련강좌

English Conversation Series
 Business Presentation Skills
 Debating and Public Speaking

English Pronunciation Clinic
TEPS 대비 강좌
CNN 듣기
시사매거진

(2) 취업대비 워크샵

E-mail Writing
Business Presentation Skills

(3) 맞춤형교육 (Custom-tailored Language Studies)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편성되는 수업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각자 취업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개인 및 소그룹 대상으로 Business Speaking, Business Presentation, Business and Finance, Current Affairs Discussion, Economist Article Reading, Newspaper Reading 등의 수업이 실시되고 있다.

(4) 취업대비 개인 상담 (Consultation)

원어민 강사와 함께 개인적으로 1시간 동안 영어연습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1시간 단위로 진행되며 실연, 비디오녹화, 분석과 교정, 재연습 등으로 이루어진다. Job Interview 연습, 전화 인터뷰 연습 등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5) 교정 서비스

언어교육원 교정 프로그램에서 영문 취업서류에 대한 교정을 받을 수 있다. 교정 프로그램에서는 취업서류에 대해 한영 번역이 아닌 영문 원고에 대한 교정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3) Special Workshop Program

몇 가지 주제로 매주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데, 통계 자료 발표를 위한 워크샵 등이 있으며, 학회 발표나 논문 작성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처리 방법 및 결과에 대해 기술하는 워크샵이다.

2. 교수학습센터의 영어교육 프로그램

취업을 앞 둔 4학년이상의 학생이나 졸업생을 위한 취업준비의 마지막 단계를 함께 할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서류특강과 서류클리닉 참관, 면접특강과 면접실습참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예를 들어, 영어논문 작성법 워크샵(이공계 대학원생 및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과 영어 프리젠테이션 워크샵(생활과학대학 대학원생) 등이 있으며 취업을

앞두고 실전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시 구체적인 정보나 방향을 알 수 있으며, 면접을 대비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지 등 취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안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3. 경력개발센터의 영어교육 프로그램

취업준비를 위한 공개특강으로 영문서류 특강, 영어면접대비전략, 영문서류 클리닉, 영어면접대비실습, 영어집단토론 면접대비실습 등이 있다.

양현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전 화: 02) 880-7680

이메일: yhkeun@snu.ac.kr

Received on June 5, 2011

Reviewed on Sept 10, 2011

Revised version received on Nov 3, 2011

Accepted on Dec 2, 2011